

* 지난주 강단제목 :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해야 할, 7포인트 제자들 (창 39:21-23, 살전 5:23-24)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 |
|--------------|---|
| ★ 임례송 | 오르간 |
| ★ 예배의 부름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 ★ 응답송 | 찬양대 |
| ★ 예배선언 |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 경배의 찬양 |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같이 |
| ★ 교백과 용사의 말씀 | 설교자 |
| ★ 주기도 |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 ★ 성서교독 | 57. 시편 130편 / 인도자와 회중 |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도다 (1-8)

- | | |
|--------|---|
| 찬송 |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 다같이 |
| 중보의 기도 | (1부) 이미지 장로 (2부) 김금남 장로 |
| 성경봉독 | 스가라 4:6(구약 1316쪽), 사도행전 1:8(신약 187쪽) / 인도자 |
| 찬양 | (1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나의 영혼아 주님을 / 시온찬양대 (현장) |

말씀의 선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미리 본 스가라**
복음으로 여는 스가라 / 설교자

- | | |
|------|------------------------|
| 봉헌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
| 교회소식 | 설교자 |

- | | |
|----------|--------------|
| ★ 결단의 찬송 | 예수 전하세 / 다같이 |
|----------|--------------|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반복)

- | | |
|-----------|--------|
| ★ 파송의 말씀 | 설교자 |
| ★ 봉헌기도·축도 | 정윤돈 목사 |

다음 주 기도 : (1부) 박영인 장로 (2부) 최진희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넛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장길순 권사 (오후) 김승훈 집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정은숙 집사

(오후) 박희영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태영아·유치부
설교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어린이부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장학증서(OMC, 참사랑장학금) 수여식이 2부예배(오전 11시 교회소식)시간에 진행됩니다. 장학금은 2부예배 후 4층 당회실에서 전달됩니다.
2. 오늘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램프부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예배 후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은 없습니다.)
3. 강단교회 시찰회 및 상비부모임이 9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4. 10월, 11월에 해외전도캠프가 진행됩니다. 캠프기간은 집회 일정 포함 3박 4일 계획 중이며,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캠프	일정	장소	예산경비	모집기간	담당자
일본전도집회	10.13(화)~14(수)	일본 오사카	100만원~	9월 12일(토)까지	최송화 권사 010-3904-7827
아시아 산업인대회	11.10(화)~11(수)	싱가포르	150만원~	9월 30일(수)까지	박주은 집사 010-7158-8591

5. 2027년 3월 중 삿포로 스키캠프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장소	예산경비	대상	모집기간	담당자
2027년 3월 말	일본 삿포로	200만원~	초급자부터 가능	9월 말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6. 북요일절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일아기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일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프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금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윤돈 담임목사 : 9.1~2 북미주 산업인대회, 9.2~3 미주 영산업인수련회
 - 2) 심한철 목사 : 8.31~9.4 교역자 휴가
2.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3.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요일식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프부서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기독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릭케이크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해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묵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프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교회소식

- 9) 쿼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를레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팝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 2)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쿼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화(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9월 1일(화)부터 2일(수)까지 '세계교회가 놓친 것 회복'(행11:9-30)을 주제로 뉴저지 서밋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3. 미주 영산산업인수련회가 9월 2일(수)부터 3일(목)까지 'All-in, All-out, All-change'(행12:1-25)를 주제로 뉴저지 서밋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4.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이 9월 8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5. 초등신학원 및 청소년신학원 2026년 가을학기가 등록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담당교역자)
- 1) 등록기간 : 9월 11일(금)까지. 2) 수업기간 : 9월 12일(토) ~ 12월 5일(토) / 12주간.
- 3) 등록현금 : 15만원. (재수강 15만원 / 초신예비반 7.5만원 / 청신청장 7.5만원)
- 4) 등록사이트 : WEEA.KR

9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0주차	북미주 산업인대회(1~2, 뉴저지 서밋장로교회), 미주 영산산업인수련회(2~3)
1주차	강남노회 시찰회 및 상비부모임(7) /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8)
2주차	교회창립59주년 기념예배(13) / RTS주일(13), RU박사원(가을학기, 16~17), 램네프데이(19)
3주차	237화요제자훈련(22, 덕평 RUTC), 직장인합숙(2기, 24~26), 다민족선교대회(24), 세계중화권수련회(25)
4주차	램네프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27) / 오세아니아 램네프대회(30~10.1)

9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현금위원	(위원장) 김경희A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6층) 오국환 정연규
안내위원	(위원장) 배승찬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장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해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원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엽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안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정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한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화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매명자 산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찬-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영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정심 임근일 최철규 장영균 최신혜 이마자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장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강공이 김희권 최재경 박인자 김춘례 이미화 김재카-장소녀 김나경 김용곤-김정순 김주영 김승훈 이순근 이영순 정향란 김일호 이세호 김미자 김순자 이은희 임영순 전 진 유재숙 호민수 김영순 조성균-김갑례 윤순옥 김정연 여 명 방주는 나경철-신현식 조현지 한영화 신혜선 김경애 임소순 박숙자 정민호-이서은 최송화 박난순 심성화 안나근 박희영 임혜연 최영국-김윤진 황해주 박찬열 김지후-이현주 이상구-이정미 정예승 김태운 이민형 이아연 송길호 정수환 김창균-임예진 유승환-최아현 임경미 윤태자 김소라 이연균 고진순 이효숙 여현지 김숙희 한경숙 유영석 김영희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조부영 양은숙 채송아 안선희 여 명 배준서 안예근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유재숙 김희권 이영순 정향란 이명재-구윤진 최철규-한영화 유충현-강공이 이정운-이순덕 배준서 이주형 박찬열 정예승 임혜미 이민형 김금남 김영희 고경훈 이수용 임근일-양은숙 김영진 임예진 홍경아 최신혜 이은희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김희권 최송화 전 진 안영순 안민희 양정심 박학규 윤성희 김애경 박진수 김미자 정민호-이서은 이영경 이아연 김지후-이현주 이은숙 최신혜 박영인 한경숙 유경형-리종화 이계옥 조부영 노은현 박동영-최진희 홍경아 무명3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임민재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조현지 김승훈 임영순 방주는 이은희 이영순 김지수 박찬열 유승범-주은경 임혜미 정수환 김순호 박동영-최진희 유영석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자유센터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2026년도 총계 444,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현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조현지 김승훈-김혜인 방주는 최철규-한영화 임영순 유승범-주은경 박찬열 김창균-임예진 김지수 정수환 김순호 박동영-최진희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무명		
장학헌금	박범사-김진아 김승훈-김혜인 조현지 방주는 강공이 이영순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김순호 박동영-최진희 박지영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어학연수	정윤돈 정수환 이아연		
RUTC헌금	정윤돈 박범사-김진아 김원일-전인숙 김승훈-김혜인 방주는 정수환 유영석 김영희 조부영 임근일-양은숙 여 명 박동영-최진희 최신혜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8. 19. ~ 2026. 8. 25.)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87,189,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70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9,719,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567,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9,000,000엔 (한화 4,130,800,000원 / 100엔환율=92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장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흥기 문길준 김갑래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남호정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치현 박현우 김장삼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식 윤수연 김지유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재 고정호 고정협 스모도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원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진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림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는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대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삼한결 목사 | 총무: 양영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정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정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은옥</u>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정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조동범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u>이 명</u>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윤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도연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u>김영진</u>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u> 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정B 유정빈
	㉑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u>이균재</u> 이순근 이수선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삼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심승언 정향란 이민수 김수화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u>김선옥</u>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해야 할, 7포인트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전서-

창세기 39:21-23, 데살로니가전서 5:23-24

들어가는 말씀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해야 할 7포인트의 제자들”이다. 7포인트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교회에도 각자의 포인트와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비우면 다 보인다. 가정에서도 나의 역할과 포지션이 있다. “나 혼자 빠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축구에도 공격수와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있고 모두 역할이 있다. 한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팀 전체가 진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위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7포인트의 제자들은 남은 자이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인물을 수없이 이야기한다. 요셉과 다니엘은 백 년에 한 번, 천 년에 한 번 나올 것 같은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누구나 영적 황제를 살리는 7포인트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을 보라. 조선 시대, 고려시대의 왕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그 왕들은 떡볶이도 못 먹고 지하철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다. 우리가 사는 현장 자체가 축복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가. 예전에는 일본의 전자제품을 보며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여러 면에서 앞선 부분이 많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를 살리려고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겨우 먹고사는 정도가 아니다. 요셉에게 남은 자, 램덴트가 된 것이 시작이다.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원히 남은 축복과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어려움만 보지 마라.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언약을 맡은 자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공부와 재능이 있어도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 남은 자는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왕따시키지 않는다. 약한 사람, 심지어 범죄자라도 시대적인 인물로 만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7포인트의 제자이고 남은 자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요셉은 맡은 일을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니 결국 다 맡긴 것이다. 여러분이 약간만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면 된다. 어느 순간 보면 그 자리에 있게 된다. 내가 여러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며 보니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금방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배우고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어디 갈 곳도 없고 능력이 많지 않아도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리더가 되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고 답을 준다(“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125:21). 그러면 어느 순간 서밋의 자리,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자리에 온다. 여러분이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급하게 한탕을 노리지 마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신용카드를 없애라니 말도 했다. 카드 없애면 처음 3개월은 힘들어도 편하다. 체크카드만 쓰는 것도 방법이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동하게 하셨더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조금하게 결혼이나 직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불안과 걱정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된다. 돌이켜 보면 대학에 가고 공부하고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거치고 목회자가 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했다. 장애인 시설에서 1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 저를 장가보내지 않으시려면 제가 그 아이들과 살겠습니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셨다. 전 세계를 다니려고 먼저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과 선교와 전도에 집중했다. 여행하고 관광하고 놀러 다니는 것에 목매는 것은 남은 자의 길이 아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집중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축구선수가 공이 올 때까지 움직이며 기회를 보듯이 가정과 직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어제 청년들과 포럼했는데 하나님을 시간표를 맞추셔서 좋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다. 세계 운동팀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청년이 스포츠 운동팀을 만들자고 했다. 팀을 만드는 목적은 단순히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살고 돈도 벌고 RUTCD 세우고 전도와 선교도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조금하게 돈과 미래를 걱정하며 여행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맡겨진 일을 똑바로 잘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문이 열린다. 조금해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고 안정적인다. 공부할 때, 자격증을 딸 때, 기술을 배울 때, 건강을 관리할 때, 전도하고 훈련받을 때가 있다. 내 위치에 따른 시간표를 알아야 한다.

7포인트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기다렸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노예로 보냈습니까? 형들은 왜 나를 팔았습니까?”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비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창37:5-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이 더 잘 보인다. 후대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주실 축복이 더 잘 보이는 사람이 성경 중만 한 사람이다. 고아와 장애인과 함께 오래 살면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억지로 참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래가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강단의 말씀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때 한바디도 놓치지 말고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까지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못해도 되고 부족해도 된다. “하나님, 지금 안 되도 이

후에 제가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후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된다.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대가 받는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막벨라 굴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후대가 축복을 받았다. 꼭 내가 받아야 하는가. 내 자식이 받으면 더 좋고 내 손자가 받으면 더 좋다.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억울하면 지금 잘하면 된다. 그러면 광야를 30년, 40년 뱅뱅 돌지 않고 열흘 만에 들어갈 수도 있다. 나의 응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응답을 바라보면 된다. 지금 전 세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가장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시간표가 당겨진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은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 이 길이 7포인트 제자들이 걸어가는 언약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7포인트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기를 든 자이다. 하지만 굴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먼저 ‘남은 자가 되면 된다. 남은 자란 믿음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복음의 사람을 말한다. 내 인생의 목표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고전10:31)이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염려나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빌4:6-7, 마6:25-34)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이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우리에게 순례자의 축복이 따라온다. 전 세계를 다니는 순례자는 그저 나 혼자 막 돌아다니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이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로마까지 가지 않는가. 미래에 어디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남은 자가 되고, 언약의 사람이 되고, 랩넌트가 되며, 믿음과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딱 뽑아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여와게서 그를 법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어제 운동하고 오는 길에 장어가 있는 청년이 함께 와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귀한 사명자였다. 초등학교 3-4학년 무렵부터 근육이 축소되는 불치병을 앓아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 부모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딸이 초등학교 때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부모도 말도 밝았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었다. 나리면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아이는 믿음이 있고 공부도 하며 미래의 비전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라고 말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청년은 본인 자체가 사람들의 기도제목이고 항상 교회에서 도망다녔지만,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고 어느새 교회하고 교사가 되었다. 남은자이다. 여러분도 남은 자이다. 끝까지 버티어야 한다. 이상한 사람을 보고 포기하면 안 된다. 적당히 교회도 그렇다.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 기를 든 자, 정복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서론

데살로니가전서는 특별한 성경이다. 신약성경 가운데 매우 일찍 기록된 성경으로 본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들이 중심이었다. 사도행전 17장의 아촌처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켰다. 믿은 지 얼마 되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다(마19:30). 늦게 믿었더라도 내가 더 확실하게 믿어 믿음으로 1등이 되겠다고 결론 내리는 사람이 아촌 같은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지만 신앙의 뿌리가 짧아 문제도 많았다. 사도 바울은 칭찬하면서도 꾸짖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 중요하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법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한다.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영”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한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지난주에 복 CCTV로 저를 보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받다 보면 어떤 말, 어떤 내용도 다 내 것이 된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다. 한 장로님이 교회에 오면 단장이 온다고 했다. 영적 싸움이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적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혼”이 잘되는 것은 깊은 기도 속에서 생각과 지식과 마음과 인생관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죄파냐 우파냐를 떠나 복음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화발이 좋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적이어야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부터 떠올려야 한다. 그러면 이미 성공자이다. “육”을 흠 없이 보존하는 것은 운동, 음식, 종합비타민, 예방, 호흡 등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다.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달란트에 맞게 건강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신앙도, 마음도, 인격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야 한다.

1. 데살로니가 교회가 창탄 받은 내용과 데살로니가의 문제

큰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창탄에 대하여 보겠다.

1) 데살로니가 교회의 창탄 받은 내용

(1)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라 말한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했다. 지난번에도 말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랑해야 한다(골3:1-2).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며,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누리게 하신다. 물론 진짜 사명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위해 육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 읍처럼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 요셉이 오히려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한 것도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건강, 재물 관리, 인간관계와 정보 등을 배우고 준비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단순한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와 언약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2)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한다. 여러분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고 축복하실 것이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설렘이 있어야 한다. 불안하면 두려움이 따라온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요한일서 4장 18절)"라고 하셨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과 감사에 자 있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3)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 한다. 훈련이나 집회에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하다. 집에 들어가도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기뻐한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예배로 기뻐하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그 후대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오늘 예배도 성공해야 한다. 말씀을 큰 기쁨과 은혜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삶 속에 녹아들어 응답으로 다가온다. 염려, 걱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4)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져 모든 믿는 자의 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8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한다. 이런 찬란 수련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일일이 되어 섭니 다른 사람들이 청년들이 잘한다고 칭찬했다. 이런 자들도 있으나 교회 안에는 새 가족도 있고 상처 많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 중간 사역자가 필요하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라고 하셨다. 약한 사람만 많으면 싸움판이 되지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과 평안과 힘을 얻고 간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 되길 주권한다. 직장에 마찬가지로. 예전에 직장에 밝은 영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밝아졌다. 영양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분위기를 깨고 성도를 쫓아내지 말라.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빠지고 섭섭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5)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라고 말씀한다. 어떤 누구의,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회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2)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1) 예수님을 믿고 죽으나 순교한 사람들에게 대한 의문이 있었다. 순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8절에서 주님의 재림을 설명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2)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일을 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한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해도 일을 해야 한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일(땀과 질)을 하다가 주님을 맞는다(마24:40-41).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2.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한 그리스도인의 삶 - 7포인트의 연약의 여정을 걸어야 할 성도들의 삶

1) 지속되는 환난과 핍박에서도 굳게 서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비밀을 알아야 한다.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큰 응답을 받고 큰 인물이 될수록 큰 문제가 더 많이 온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응답으로 보고 축복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해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우리 삼촌의 아들 결혼식에 갔을 때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왔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 무서운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예배가 끝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는데 빌딩을 몇십 개 가진 엄청난 부자가 "오늘 많이 배웠네."라고 했다. 불신자였지만 그 모습을 보며 성공하는 사람의 그릇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도 스스로 굳게 서기를 바란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거기서 받을 축복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그릇은 간장 종이지만 한데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풀라 뚜껑이러라 했다. 성도의 속이 얼마나 좁고 작으면 그것보다도 못하겠는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할 때 속이 좁아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한다.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한다. 교회에서도 헌신한 사람에게 일을 더 시킨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은 계속 평계하고 이유를 대거 때문이다. 일을 맡기면 "갑사합니다. 나를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누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 "또 이 일 줘요? 나 힘드네, 바쁘네." 하면 안 된다. 바쁘다는 것도 때로는 거짓말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해버리면 나머지 시간이 비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고 근본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집중할 것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무능한 사람을 치유해 유능한 탕렘트,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

3)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8절은 우리가 거룩할 것을 말하고 있다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온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종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더

립고 추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해지는 것이 목표이다(마5:48).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빌1:6). 기독교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 지 5년, 10년이 되어도 몰래 술과 담배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그것이 끊어졌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체질도 완전히 바꾸실 줄 믿는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하나님도 힘들지 않은 것. 그것이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언약의 길이다. 300%의 길이다. 즐겁고 재미있고 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참고 또 참기만 해서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

4) 자신의 직업과 일에 힘써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한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면 된다. 루터와 칼빈의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에서는 직업 소명설을 이야기했다. 과거에는 성직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성도의 직업과 직업과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정신 때문에 유럽의 산업과 문화가 발전했고 미국도 발전했다. 개혁주의의 정신은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절약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었다.

5) 말세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9절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한다.

6) 교회 생활과 치유 사역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5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 안에는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자들, 중간 사역자, 중직자가 되어 이런 이들에게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란다.

7)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8)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5:19-22)”

9) 마지막으로 삶의 절대목표다. 영과 혼과 육을 흠 없이 보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24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5장 23절 앞부분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약속하신다. 그리고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한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랍닌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언약하고 갱신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고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나를 완전한 사명자, 전도자, 제자로 거듭나게 하신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랩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걸 010-8206-2024	합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장)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여준석 감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근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중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정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희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위싱턴) ⑳ 이웅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㉓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